

2017년 5월 14일,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상선(여, 1933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고군자(여, 1939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- 줄거리: 제주도에 전하는 옛 이야기 중, 지관 자손과 상군 해녀의 자손 그리고 심방 자손은 안 된다는 말이 있다. 지관, 심방, 해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.

[조사자] 유명한 정시 얘기는 엇우과?

[제보자1] 유명한 정시 저, 갯마리 유명한 정시 있어났주.

[조사자] 갯마루에?

[제보자1] 응, 팽대 으 바닷가 잇인다. 고정시엔 헌 사름.

[조사자] 어떻게 잘 봐났덴, 잘 헤났덴 헛디가?

[제보자1] 그 사람은 산터도 잘 보곡이, 이, 날 택일도 잘 보곡 헤났어. 막 유명허게이 구 좌엔 다 그디 가났어.

[조사자] 그 사람이 못자리 봐주민 그믐 집안이 다 잘뉘마씨?

[제보자1] 응, 게난 잘뉘.

[제보자2] 정시 자순 잘 안 뉘어게.

[제보자1] 아니, 산이 가그네 영 뭐하민 그 사름 훈 번……. 게난 그 집안은게 훈엇이게 그걸 우헨 살앗주게 그 하르방이나 그 아덜덜이나.

[조사자] 근데 들어본 얘기는예? 또 제주도에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믄 정시 집안은 잘 안 뉘덴 굴읍니다예? 거…….

[제보자1] 응, 안 뉘여.

[조사자] 무사 안 뉘마씨?

[제보자1] 옛날, 옛날 이 훈 사름이 옛날 얘기 허는 말은이, 물질 헤영 상군 즈순 아이 뉘곡, 심방 즈순 안 뉘곡, 정시 즈순 안 뉘곡 경 헌덴 헤여.

[조사자] 상군 즈순은 무사 안 뉘마씨.

[제보자1] 거, 이 물숨 먹으멍 뉘 헤부난게, 숨 먹으멍 뉘 헤불곡. 이 심방덜토게 그, 뉘 헤영 공것 먹엇젠 헤그네 즈순 안 뉘곡. 정시도 그거 주게, 공것 먹엇젠헨 즈순 안 뉘덴, 경 헨. 심방 즈순 안 뉘다. 저 물질 잘 허는 상군 즈순 안 뉘다 경 헤났어.

[조사자] 그믐 물숨 먹으믄 뉘가 안 좏앙 자순이 안 된단 애깁니까?

[제보자2] 숨 츠므멍 아멩헤도 헤부난 일거라.

- 핵심어 : 상군 즈순, 심방 즈순, 정시 즈순, 물질, 공것, 상군, 정시, 지관, 심방, 무당